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 : 어머니의 반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양은**

The Effect of Toddler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s Negative Emotions of Social-emotional Behaviors

Kim, Yang Eun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적 정서가 드러나는 걸음마기 영아를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18-36개월 걸음마기 영아와 어머니 141명이었으며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은 서로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또 영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정도의 부정적 정서를 가진 영아라도 환경적 특성인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사회정서 행동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영아의 정서성과 사회정서 행동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은 영아가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기질적 특성 뿐 아니라 어머니의 변인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며, 어머니의 반응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주제어 : 걸음마기 영아,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사회정서 행동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 제1저자(교신저자) :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조교수, yekim@wsu.ac.kr

I. 서론

사회정서 행동은 인간이 사회의 성숙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행동으로(이윤정, 2013), 출생 후 자기가 속해있는 사회집단 내에서 구성원들과의 상호접촉과 집단 내에서 허용되는 행동양식을 통하여 그 집단의 가치, 문화, 규범들을 익혀 가며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그에 알맞은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이정순, 2002). 인간은 누구든지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며(Rubin, Hastings, Chen, Stewart, & MacNichol, 1998), 영아 또한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고 함께 놀기를 원하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한다(김난실, 2004). 그러므로 영아가 시도하는 사회정서 행동은 영아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또래관계를 성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영아의 사회화 과정은 아주 어린 연령부터 시작된다. 영아의 사회성은 출생에서 2세에 이르기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주된 양육자를 중심으로 점차 상호작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발달하게 되는데, 1세 이후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점차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발달시킨다(Kostelnik & Grady,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생후 3년 이내에 영아가 적절한 자극과 교육들을 경험하면 사회정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반면 기질적 특성, 영아에 대한 무관심, 스트레스, 가난과 같은 부정적인 자극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석관, 2007). 게다가 영아의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사회정서 행동은 연령에 따른 변화가 적고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형성하는 선행변인을 밝혀 이를 초기에 중재할 필요가 있다(최지영, 김미애, 2010).

최근 사회정서 행동에서 정서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되어(Campos, Campos, & Barrett, 1989; Thompson, 1994) 기질의 정서적 측면인 정서성을 사회정서 행동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권연희, 이종희, 2005재인용). 정서란 보다 분화된 기분상태로 기쁨, 애정, 의기양양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분노, 불쾌감, 두려움, 혐오,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나누어진다(여민희, 2011). 두 정서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이 관여하고 있는 특정상황에서 대인관계를 시작하고, 수정하고, 유지하거나 종결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신금주, 오영희, 우수경, 전호숙, 2004). 기본적인 정서는 출생 시부터 존재하지만 분화가 충분하지 않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확실한 분화가 이루어져 2세 말경이 되면 어른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분화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2세경이 되면 양육자의 반응이나 통제에 의한 외적인 정서표현에 의해 조절이 이루어지며, 점차 영아 스스로 정서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이숙재, 이봉선, 2008). 이렇듯 비교적 어린시기에 정서가 분화되고 이에 대한 조절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영아기의 정서성은 성격형성 뿐 아니라 지적능력, 운동능력, 사회적 평가와 자기평가의 기초가 되어 사회정서 행동 및 또래관계를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양균, 2006; 허지은, 2005; Denham, 2006).

영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들은 긍정적인 정서이든 부정적인 정서이든 모두 환경에 대한 적응적 대처의 중심과정이라 할 수 있다. 걸음마기 영아는 정서표현이 강하고 울거나 떼를 쓰는 것이 특징이며 계속되는 동안에는 대단히 강렬하지만 지속시간이 짧고 분화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정은숙, 2011). 정서의 분화는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가 더 일찍 이뤄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영아에게 위협하거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을 인

식하게 하는 일종의 적응적 기제라 볼 수 있다(여민희, 2011).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영아의 사회정서화에서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의 영향력을 더 크게 평가되고 있는데,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가 더욱 중요한 조절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공격적이며 위축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집단에서도 잘 수용되지 못하였다(권연희, 2012; 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Fabes, Eisenberg, Jones, Smith, Guthrie, Poulin, Speward, & Friedman, 1999; Rothbart, Ahadi, & Hershey, 1994). 또 부정적 정서성은 공격성이나 죄의식 등과 관련을 보였으며, 다른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아동은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Rothbart et al., 1994).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부정적 정서성은 사회정서 행동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Fabes et al., 1999).

한편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은 영아가 최초로 접하는 환경인 부모이다.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영아가 사회정서적 능력을 경험하고 사회정서적 기본 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김숙령, 최향준, 정경화, 이윤이, 2012; 김유미, 김정원, 2011). 영아는 어머니와 특별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영아가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영아의 인지적 도식에 영향을 끼쳐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즉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를 보여주거나 영아의 정서에 반응을 보이거나 정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등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들로 하여금 그 사회가 속한 문화로부터 수용할만한 사회정서 능력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긍정 정서는 극대화하고 부정 정서는 최소화하려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기 때문에(Tomkins, 1963), 어머니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낼 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Dunn & Brown, 1994). 따라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에게 더 풍부한 사회정서화 기회를 제공한다(Eisenberg et al., 1998).

영아는 원하는 목표가 성취될 수 없거나 좌절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상황에 대처하며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때 어머니는 영아와 상호작용하면서 정서표현의 모델이 되어주고 영아의 정서표현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면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도록 돕는다.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시켜갈 때 교육적인 자극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나타내는 반응은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8). 이러한 반응은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정서화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그 개인차에 기인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부정적 정서는 표현해서는 안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부모들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경험과 표현을 최소화하고 무시하도록 자녀에게 지도하고,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과 그것을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지지하게 된다(Gottman, Katz, & Hooven, 1997).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의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영아들이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나타내며, 영아들로 하여금 모방, 친사회성과 같은 긍정적 정서행동을 많이 하게 한다(Garner, Jones, & Miner, 1994). 그러나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비지지적으로 반

응하게 되면 낮은 수준의 정서조절, 공격성이나 회피행동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야기시킨다 (Eisenberg & Fabes, 1994; Fabes, Eisenberg, Karbon, BernZweig, Garner & Power, 1996; Speer & Carlo, 1994; 성미영, 최인숙, 이강이, 2007, 재인용). 이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표현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영아가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배우거나 모델링함으로써 스스로 긍정적 정서반응을 보이게 되지만, 자녀의 정서표현에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태도는 역기능적인 정서조절과 관련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박성연, 이은경, 배주희, 2011).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영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상태에 해당하는 정서성은 또래관계나 사회적 적응을 나타내는 사회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정적 정서 수준에 따라 사회정서 행동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영아의 정서성은 부모의 행동 등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조절될 수 있으며, 영아의 특성과 부모의 정서 관련 반응은 상호작용적 또는 전이적 영향이 있어(Sameroff, 1975) 영아의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부모 반응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화의 대행자인 부모는 긍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직간접적인 정서조절방식을 학습시키게 되는데, 특히 부정적 정서 반응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는 학령기 전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행동조절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대처반응과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성향이나 사회적 행동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영아가 사회정서화 능력이 발달되는 중요한 시기임이 거론됨과 아울러 영아들이 보육기관에 입소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또래관계의 핵심이 되는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변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이 드러나며 또래와 초기 사회성이 시작되는 걸음마기 영아를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비지지적 반응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연관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은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정서 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18-36개월 걸음마기 영아와 어머니 141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걸음마기 영아의 월령대는 18-24개월 36.9%(52명), 25-30개월 34.1%(48명), 31-36개월 29.1%(41명)이었으며, 남아가 56.4%(79명), 여아가 43.6%(61명)였다. 영아의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가 46.4%(65명), 둘째가 42.1%(59명)이었으며, 셋째가 10.0%(14명), 넷째인 경우가 1.4%(2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인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2.33세($SD=4.07$)이었으며,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34.36세($SD=5.15$)이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 33.3%(44명), 전문대졸 25.8%(34명), 대졸 34.1%(45명), 대학원 졸업이 6.8%(9명)이었으며, 배우자의 학력은 고졸 21.2%(28명), 전문대졸 17.4%(23명), 대졸 44.7%(59명), 대학원 졸업이 16.7%(22명)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유무 및 직업유형과 가계월수입을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취업유무 및 직업에 관해서는 전체 141명 중 9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취업모가 41명(45.6%), 전업주부가 49명(54.4%)으로 조사되었다. 또 가계월수입은 119명(84.0%)이 응답하였으며 월평균 최소수입은 80만원, 최대수입은 1000만원, 평균가계 수입은 323.05만원($SD=142.380$)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영아의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와 동료들(1994)이 개발하고 이기영(2007)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문장을 보완한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ECBQ)를 사용하였다. ECBQ는 18-36개월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외향성, 부정적 정서, 주의 통제의 3개 상위영역으로 구분되고 다시 18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53문항, 5개의 하위영역(불안, 공포, 슬픔, 진정성, 좌절)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주어진 문항에 대해 영아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해당없음(NA)'에 표기하도록 하여 점수계산에서는 제외하였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68~.82였으며, 부정적 정서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2)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Eisenberg, Fabes와 Murphy(1996)의 Coping with Toddlers' Negative Emotions Scale(CTNES)을 사용하였다. CTNES는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CCNES; Fabes, Eisenberg, & Bernzweig, 1990)을 걸음마기 영아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영아가 부정적인 감정(예. 분노, 슬픔, 공포, 긴장 등)을 표출하는 가상의 12가지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상위 영역으로 지지적 방법과 비지지적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지적 방법에는 영아의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반응,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이 있으며, 비지지적 방법으로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반응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가지 가상의 상황 중 특정 상황의 영아에게만 해당되거나(새로운 베이비시터가 왔을 때 아이의 반응) 한국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부모와 따로 잠자리에 들 때 아이의 반응)을 제외한 10가지 상황을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과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서표현 격려(Expressive Encouragement): 영아가 왜 그러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으로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예. 병원을 가고 주사를 맞는 것은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며 이것은 아이가 느끼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함).

② 정서중심 반응(Emotion-Focused Response): 영아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위로해주는 반응으로 신뢰도 계수는 .79이었다(예. 일단 아이를 달래고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함께 재미있는 활동이나 놀이를 함).

③ 문제중심 반응(Problem-Focused Response): 영아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격려하는 반응으로 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예. 전화를 받고 있어 아이와 놀아 줄 수 없을 때 아이가 나를 기다리는 동안 가지고 놀 수 있는 무언가를 찾도록 도와줌).

④ 스트레스 반응(Distress Reaction):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부모가 느꼈던 불안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하는 반응으로 신뢰도 계수는 .71이었다(예. 아이의 부주의함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름).

⑤ 처벌적 반응(Punitive Response):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가 벌을 주는 반응으로 신뢰도 계수는 .73이었다(예. 만약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TV시청과 같이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함).

⑥ 최소화 반응(Minimization Response): 부모가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영아가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의 가치를 낮추는 반응으로 신뢰도 계수는 .75이었다(예. 이 일은 울 일이 아니며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고 말함).

3) 걸음마기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을 측정하고자 Carter, Briggs-Gowan, Jones와 Little(2003)이 개발한 Infant Toddler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ITSEA)의 Brief 버전(BITSEA)(Briggs-Gowan, & Carter, 2006)을 사용하였다. BITSEA는 12-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적 행동 및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전체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 긍정적 행동 1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그 하위변인으로 유순함(compliance), 주의집중(sustained attention), 완수동기(mastery motivation), 친사회적 또래관계(prosocial peer relations), 감정이입(empathy), 모방 및 놀이기술(imitation/play skills)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척도(CTNES)와 걸음마기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 척도(BITSEA)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아 연구자가 번역-재번역 방식으로 번역하여 아동학 전공자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후 해당연령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거나 뜻이 모호하여 이해가 어려운 문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영아의 성별, 월령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의표집과 눈덩이표집 방식을 병행

하여 연구대상을 모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집 초기에는 표집가능하며 본 연구에 동의하는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찾아낼 수 있는 목표 모집단 구성원의 일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그들에게서 그들이 알고 있는 모집단의 다른 성원들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전 연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구두와 e-mail, 문서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대상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의 수거율은 81%(200부 배포, 162부 수거)이었으나, 응답자가 조사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와 전체 응답의 3분의 1이상 응답하지 않은 21부의 설문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41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반응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련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김한나, 서소정, 2012, 재인용).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a),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한다(c). 또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b),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c)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c')의 회귀분석결과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한다. 이때 (c')를 나타내는 비표준화계수(β)가 유의하지 않거나 (c')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더라도 (a)와 (b)가 유의하고 (c)에 비해 감소하였다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김한나, 서소정, 2012, 재인용).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사회정서 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었는데($r=-.27, p<.01$),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강할수록 사회정서적 행동은 감소하였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반응 모두와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정서성이 강할수록 지지적 반응을 적게 ($r=-.22, p<.01$), 비지지적 반응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9, p<.01$).

둘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반응이 지지적인 경우 영아의 사회정서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r=.33, p<.01$), 어머니의 반응이 비지지적일 경우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r=-.25, p<.01$).

<표 1>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

	1.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		3. 사회정서 행동
		2-1. 지지적 반응	2-2. 비지지적 반응	
1	1			
2-1	-.22**	1		
2-2	.29**	-.18	1	
3	-.27**	.33**	-.25**	1
평균	3.31	4.59	3.48	2.36
표준편차	1.77	.65	.65	.25

* $p<.05$, ** $p<.01$

2.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비지지적 반응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rity)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분산팽창 계수(VIF), Durbin-Watson 계수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상관계수가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r=.80$ 미만이었으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의 분산팽창 계수는 1.00-3.15, Durbin-Watson계수는 2.33이었다. 또,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의 분산팽창 계수는 1.00-3.25, Durbin-Watson 계수 2.22로 자기회귀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사회정서 행동에 미친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9%였다($F=9.18, p<.01$).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회귀모델에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4%로 증가하였으며 이 모델은 유의미하였다($F=8.85, p<.001$).

<표 2>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서 행동			
	Model1		Model2	
	<i>B</i>	β	<i>B</i>	β
부정적 정서성	.04	-.29**	-.04	-.23*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11	.27**
<i>F</i>	9.18**		8.85***	
<i>R</i> ²	.08**		.14***	
ΔR^2	.09**		.07**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부정적정서성이 사회정서 행동에 미친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5%였다($F=6.28$, $p < .05$).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회귀모델에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0%로 증가하였으며 이 모델은 유의미하였다($F=5.54$,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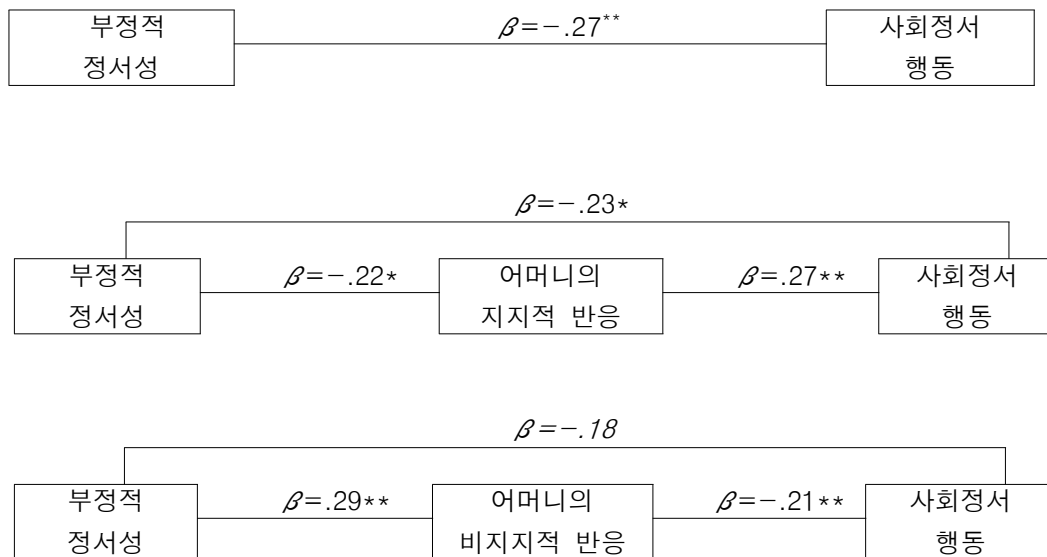
<표 3>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서 행동			
	Model1		Model2	
	<i>B</i>	β	<i>B</i>	β
부정적 정서성	-.04	-.24	-.03	-.18+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08	-.21*
<i>F</i>	6.28*		5.54**	
<i>R</i> ²	.05*		.10*	
ΔR^2	.06		.04	

* $p < .05$, ** $p < .01$, *** $p < .001$

3.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매개효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세 가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독립변인,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종속변인인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독립변인,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독립변인,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이 종속변인인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서 어머니의 반응 매개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매개변인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22$ $p < .05$),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종속변인인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7$ $p < .01$). 마지막으로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부정적 정서성($\beta = -.23$ $p < .05$)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beta = .27$ $p < .01$)이 유의했으며, 이때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β 값이 $-.27$ 에서 $-.23$ 으로 감소하여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Sobel검증을 실시한 결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을 통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3.27, p<.001$).

다음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29, p<.01$). 그러나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으나($\beta=-.27, p<.01$),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β 값이 $-.27$ 에서 $-.18$ 으로 감소하며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Sobel검증 결과 그 유의성이 확인되었다($z=2.27, p<.01$).

<표 4>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β	R^2	F
1 단계 (독립 → 매개)	부정적 정서성 →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22*	.04	5.00*
2 단계 (독립 → 종속)	부정적 정서성 → 사회정서 행동	-.27**	.07	10.81**
3 단계 (독립, 매개 → 종속)	부정적 정서성 → 사회정서 행동	-.23*	.14	8.85***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 사회정서 행동	.27**		

* $p<.05$, ** $p<.01$, *** $p<.001$

<표 5>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인	β	R^2	F
1 단계 (독립 → 매개)	부정적 정서성 →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29**	.07	9.13**
2 단계 (독립 → 종속)	부정적 정서성 → 사회정서 행동	-.27**	.07	10.81**
3 단계 (독립, 매개 → 종속)	부정적 정서성 → 사회정서 행동	-.18	.09	5.54**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 사회정서 행동	-.21*		

* $p<.05$, ** $p<.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영아를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반응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정서 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걸음마기 영아의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강할수록 사회정서 행동은 낮게 나타났다. 또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강할수록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약하게, 비지지적 반응은 강하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 비지지적 반응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가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고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회정서적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영아의 기질적 특성이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숙령, 최향준, 정경화, 이윤이, 2012; 박경자, 1992; 이선영, 2006; 정점옥, 2009; Thomas & Chess, 1977; Wittmer & Petersen, 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영아의 정서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다르게 이끌어내어 사회정서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성만 투입했을 때보다 어머니의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 반응을 투입하였을 때 그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아의 정서적 특성과 사회정서 행동(김민희, 2010; 김숙령 외, 2012; 라양균, 2006; 이화용, 2012; 정점옥, 2009), 정서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박지숙, 2008; 선우현정, 2009; 우수경, 2005; 최향준 외,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김숙령 외, 2012) 등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편, 영아의 정서성과 어머니 반응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특정상황에서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Davidov & Grusec, 2006), 이는 일반적인 부모 양육 실체가 자녀의 사회정서 행동에 강한 예언요소가 되지 못하므로 일반적 접근보다 좀 더 복잡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Gottman, Katz와 Hooven(1997)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아의 정서성과 영아의 정서와 관련된 부모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었고, 분석결과 두 변인 모두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을 예언하는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사회정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에 영향을 끼쳐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omas와 Chess의 초기 연구 이래로 영아의 기질적 특성은 부모로부터 차별화된 반응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부모로부터 통제적, 거부적 혹은 비판적인 부정적인 양육 피드백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지속되어 부정적인 발달을 초래하게 된다(윤

기봉, 2012; Hemphill & Sanson, 2000).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정서성을 가진 아동이 무조건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내서 부정적인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반응이 중재된다면 긍정적인 발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영아의 정서를 건설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비계가 되어 친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적인 반응이 유아가 정서를 긍정적인 것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며(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3), 부모가 자녀의 감정표현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배우거나 모델링함으로써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박성연, 배주희, 2011, 재인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사회정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영아가 사회정서 행동을 하는데 있어 영아 본인의 가진 특성(정서성)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질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영아라도 어머니의 반응이 비지지적이면 부정적 사회정서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짐작케한다. 아동의 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Dual Risk Model(Barry, Kochanska, & Philibert, 2008)에 의하면, 기질적으로 취약한 아동은 부정적인 환경 하에서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긍정적인 환경 하에서 그 위험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결코 취약하지 않은 일반 아동보다 더 나은 발달적 결과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부정적인 사회정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 간의 관계는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지지적인 반응과 사회정서 행동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거나(노지영, 정윤경, 2010), 비지지적 반응에 비해 관련성이 약하게 나타났던 연구결과들(Eisenberg et al.,1996; Eisenberg et al.,1998)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 차에 의한 것이라 사료되며,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제안해본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및 사회정서 행동을 측정하는 데 다양한 연구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스스로 체크하는 부모 평정척도인 설문지를 통해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부모의 평가도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반응,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특히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정서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반응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역할과 양육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인과 중재변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그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를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 권연희(2012).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정서표현성. **대한가정학회지**, 50(5), 13-24.
- 권연희, 이종희(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김난실(2004). 만2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정, 이경님(2011).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253-271.
- 김숙령, 최항준, 정경화, 이윤이(2012). 영아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1), 551-575.
- 김민희(2010). 영아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미, 김정원(2011). 어머니의 행복감과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행동 및 외현적·내면적 문제행동간의 관계. **어린이 문화교육 연구**, 12(1), 285-302.
- 김한나, 서소정(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과 영아 발달간의 관계 연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검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07-329.
- 라양균(2006). 만1세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44, 19-36.
- 라양균(2006). 영아의 사회정서 능력과 기질 및 애착간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지영·정윤경(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상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57-71.
- 박경자(1992). 영유아기 타아 양육이 학령 전 어린이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2), 217-227.
- 박성연, 이은경, 배주희(2011).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및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과 유아의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55-69.
- 박지숙(2008). 아동의 기질, 정서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선우현정(2009).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미영(200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사회적 기술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7(3), 285-300.
- 성미영, 최인숙, 이강이(200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과 유아의 정서지식 및 정서반응-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5(8), 61-75.
- 여민희(2011).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교사의 반응유형에 관한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금주, 오영희, 우수경, 전호숙(2004).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정서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파주: 21세기사.

- 윤기봉(2012).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강이(200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455-463.
- 이기영(2007). 교사의 보육신념, 보육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영아 기질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재, 이봉선(2008).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서울: 창지사.
- 이선영(2006).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정(2013). 교사·영아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정서행동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순(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순(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지은(2013).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용(2012). 영아의 놀이성과 기질 및 사회·정서 발달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슬기(2013).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가천대학교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윤주(2006).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양식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4(11), 23-34.
- 정은숙(2011). 어린이들의 점토향상에 따른 정서 변화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점옥(2009). 영아의 사회, 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수영, 전숙영(2013). 영아의 기질에 따른 영아-교사의 어린이집 일과 내 상호작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101-128.
- 조운영(2014).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 요구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석란(2007). 예비교사의 관점에서 본 유아갈등 상황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147-165.
- 최지영, 김미애(2010). 유아기질과 부모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19-137.
- 최향준, 최선녀, 임현주(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아의 사회·정서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6, 49-72.
- 허지은(2005).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ry, R. A., Kochanska, G., & Philibert, R. A.(2008). G×E interaction in the organization of attachment: mothers responsiveness as a moderator of children's genotypes. *Journal of Child Psychol Psychiatry*, 49(12), 1313-1320.
- Briggs-Gowan, M. J., Carter, A. S., Irwin, J. R., Watchtel, K., & Cicchetti, D. V.(2004). The brief infant-toddler social emotional assessment: Screening for social-emotional problems and delays in competenc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9(2), 143-155.
- Briggs-Gowan, M. J., & Carter, A. S.(2006). *Infant-toddler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examiners manual*. PsychCorp: Harcourt Assessment, San Antonio, TX.
-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94-402.
- Carter, A. S., Briggs-Gowan, M. J., Jones, S. M., & Little, T. D.(2003). The infant-toddler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ITSEA):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5), 495-514.
- Davidov, M., & Grusec, J. E.(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1), 44-58.
- Denham, S. A.(2006). Social-Emotional competence as support for school readiness: What is it and how do we assess i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57-89.
- Dunn, J., & Brown, J.(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137.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5), 1418-1438.
- Eisenberg, N., & Fabes, R. A.(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of Social Psychology*, 78(1), 136-157.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Description and scoring. Unpublished scale,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s and Human Development, Arizona State University.
- Fabes, R. A., Eisenberg, N., Karbon, M., Bernzweig, J., Speer, A. L., & Carlo, G.(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 Relations with mot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emotional reac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4-55.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K., Poulin, R., Shepard, S., & Friedman, J.(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2-442.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2003).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3-4), 285-310.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2), 622-637.
- Garner, P. W., & Power, T. G.(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4), 1406-1419.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to links to child-peer relations and other developmental outcom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emphill, S., & Sanson, A.(2000). *Relations between toddler and preschooler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 in an Australian sample*. Paper presented at the 16th Bienni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Beijing, China, July.
- Kostelnik, M. J., & Grady, M. L.(2009). *Getting it right from the start: The principal's guide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Thousand Oaks, CA: National Association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 's and Corwin.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3), 386-401.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1), 21-39.
- Rubin, K. H., Hastings, P., Chen, X., Stewart, S., & McNichol, K.(199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 in toddler. *Child Development*, 69(6), 1614-1629.
- Sameroff, A.(1975). Early influences on development: Factor or fancy?. *Merrill-Palmer Quarterly*, 21, 263-294.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unner/Mazel.
- Thompson, R. A.(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 Tomkins, S. S.(1963). *Affect, imagery, consciousness: Vol.2. Negative affects*. NY: Springer.
- Wittmer, S. D., & Petersen, H. S.(2006).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and responsive problem planning*.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oddler's emotionality and mother's reaction to their child's negative emotions of social-emotional behaviors of toddlers. The subjects were 141 mothers and toddlers ranging in age from 18 to 36 months.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1)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ECBQ)(Rothbart, 1994), 2) Coping with Toddlers' Negative Emotions Scale(CTNES)(Eisenberg et al., 1996), and 3) Brief Infant Toddler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BITSEA)(Carter et al., 2006).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oddler's emotionality and the mother's negative reaction to their child's negative emotions were related to the social-emotional behaviors of toddler. Also, mother's reaction to their child's negative emotions have mediation effects between toddler's emotionality and social-emotional behaviors. Specifically, toddler's emotionality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social-emotional behaviors through mother's supportive reaction to their child's negative emotions. Additionally it was also determined that the toddler's emotionality has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unsupportive reaction to their child's negative emotions and the social-emotional behaviors of toddler. These results support the notion that mother's character as well as child's personality at birth are critical predictors which could impact social-emotional behaviors of toddler.

▶ *Key Words* : toddler, negative emotionality,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ocial-emotional behaviors

논문투고 2014. 04. 15.
수정원고접수 2014. 06. 03.
최종게재결정 2014. 06. 17.